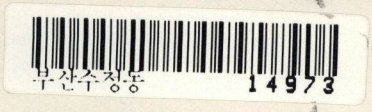
중구 수정2동 210, 13/6
강 24 원 올림

601-032



받는 사람

부산 중구 ~~수정~~2동 1-61(동일빌딩 5층)
민주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노무현 귀하
601-032

유권자 회답

노무현 선생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보잘것 없는 저에게도 유권자 엽서와
글월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받았읍니다.
선생님 입장을 두번째 국회의원인
유세장과 당대회 연설을 보았읍니다.
T.V 청문회와, 마산 노조문제도 보았읍니다.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훌륭했다기
보다는 화려한 국회의원, 권리와 의무에
남다른데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가지 아쉬운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뿌리와 근본이 농수리 역이라면
좋더 일찍이 이런격식의 엽서라도

해마다 보내 주셨드라면 임기중
행적보고서나 일기장이라도 마을유선
방송이라도 들려 주었드라면 좀
거리감이 없이 정겨운 유권자와
의원님이 돼지 않았나 싶읍니다.
사람들엔 항시 한구석이 빈자리가
있게 마련이니 요번 낙선은 삼복
더위에 덕망을 쌓기 위한 윷모초를
한 대접 마신것으로 생각 하십시요.
차기엔 의원으로 출마 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 나올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저에게도 선생님을
지지 하도록 하겠읍니다.
저 또한 생활과 번민속에

인생의 패배를 수없이 맛볼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오뚜기처럼 살아
가니까요. 지난 의원시절을 멋지게
보냈다면 오는 차기에는 의원(議員)
님이 돼던 안돼던 내실있는 선생님이
돼시길 바랍니다. 동구민과 나라를
위하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 꼭
필요한 선생님이 돼시길 기원합니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말씀
올린다면 허삼수씨와 어떤 이야기인지
잘몰라도 관대하지 못하고 탓 한다
거나, 인사 잘하는 의원이 필요하면
술집 정문앞에 인사잘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라는 억지스러운
발상을 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냉철
하고 엄중한 의원선택에 자질을
주는 것이 아니면은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선생님 오해를 마십시오
저는 호수대방에서 열열히 환호했던
유권자 입니다. 아직도 젊으니
참일이 맡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수년전 부터
공덕을 쌓아 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방회에 가사를 탕진
했다는 말을 들은것이 있는듯 합니다.

저는 30년전 어느 약사님 한테 들은
이야기 인데 뉴질렌드 국민성은 관리를
하랴 농사나 상인이 돼랴 하면 농민이나
상인이 돼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링컨 대통령은 연단에서 간단한 말로
청중을 따르게 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자신을
갈춰가며 벼슬도 마다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 한일이 만다고 하는것 같읍니다.
선생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지지했던
보잘것 없는 저는 잡음과 시비를 의지
와 집념으로 묵인하시고 임기중에

인연던 일들을 잘못댄 인과관계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앞으로
무언의 실천으로 동구의 나라는
선생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한번보고
싶읍니다. 우선 조용한 좋분동네,
깨끗한거리, 정다운이웃 내실인게
해쓰신다면 선생님은 또한번
뽑날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소극적인 저에 보잘것
없는 소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댄점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요.

일찍이 어느의원님도 없었던 유권자에 대한 낙선후의 세련 인사는 유권자로 하여금 기억을 새롭게 할 줄을 안내 역활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의원으로 당선이 되거던 입기증 야당하겠다고 해놓고 여당하거나 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일은 유권자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양 당선 안되면 영도를 오지마시고 영도에서도

당선이 안되면 이곳에 않온다는
말씀을 좀 이상하게 들렸읍니다.
유권자들중 선생님을 미워 하려는
사람들은 데모나 시위 주동자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읍니다. 선생님의 글월중
중상모략이 있거나 인신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극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리라는
선생님은 인기가 있는 분이였다고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사무적으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연결해서
일이 많으니 적당히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노무현 선생님! 저는 그동안
이제까지 느낀 선생님의 이미지를
유권자 입장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쓸데없는 긴글을 올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건강하십시요.

1992년 5월 19일 유권자 강재원 배